

# 로동신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5호 [무제 제25368호] 주제 105 (2016)년 8월 12일 (금요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의 최고성지를 더 잘 꾸리는데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바치고있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보내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지니고 평안북도 무역관리국, 상용합작회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꽃피와 나무모를, 후방물자들을 보내줌으로써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훌륭히 꾸리는데 기여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세상에 물도 없는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간직하고 보건의대의보건의료사 교원 리정일은 성의껏 미련한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림업성 처장 김명준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믿음을 간직하고 어려움에 맞선 선비의 자세를 기증하였다.

평양연극대학 교원 김수미는 가정에 홀려 주신 배우님들의 사랑을 크나큰 은덕에 보답해 감 일념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는데 사업에 온갖 지성을 바치고있다.

백두산천출위인들을 친세탄세 높이 우리로 모시려는 선단군민의 절절한 념원을 실현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고마움을 안은 황해남도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최은철은 태양의 성지에 깨끗한 마음을 비추면서 지원사업에 앞장섰다.

순천시인민보안사 산하단위 소장 김명호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길에 태양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온 가족과 함께 주체의 최고성지를 더욱 빛내이는 사업을 몰신행으로 지원하였다.

평명기술사 로동자 연승인, 문덕군 서로로동자구 47인민반 주유너도 좋은 수종의 나무모들과 어머니가 꽃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어 인류의 태양을 높이 모신 대진당에 총정의 자욕을 서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편지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지닌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깊이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바쳐갈 줄을 결의해 넘쳐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에 보내주신 설비들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받들고 명작창작업들을 세계에 일으켜나가고있는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설비들에는 촬영소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만화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며 우리 만화영화를 세계만화영화계의 앞선 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우기를 바라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있다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총정을 안고 조설비들을 전달하는 모임이 11일에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막은남 문화상, 판계부분 일군들, 촬영소의 일군들, 창작가, 예술인,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설비들에는 촬영소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만화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며 우리 만화영화를 세계만화영화계의 앞선 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우기를 바라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있다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총정을 안고 조설비들을 전달하는 모임이 11일에 진행되었다.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일군, 지원자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 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표창장이 정지철, 김병철, 황금산, 박명남, 이명철, 엄영학, 박동철, 김홍기, 권문철, 안학길, 박성남, 고영선, 김명철, 리기경, 리성봉 등에게 수여되었다.

김일성청년연예상을 엄금철, 정철범이, 김명철청년연예상을 서명준, 한평영이 수여받았다.

공공건설기공호, 공공건설자 칭호, 공훈공로자훈장, 공훈공로자 칭호 5명에게 수여되었다.

또한 국가표창 제1급을 비롯한 훈장과 메달을 많은 건설자들과

##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조국해방 71돐에 즈음하여 말레이시아에서 6일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말레이시아의 각계 인사와 대중이 참가하였다.

2017년 백두산위인장송대회 말레이시아준비위원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했다.

조국해방 71돐을 맞이하는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8월 15일에 즈음하여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명어인 김일성주체사상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주체사상은

##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일군, 지원자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 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표창장이 정지철, 김병철, 황금산, 박명남, 이명철, 엄영학, 박동철, 김홍기, 권문철, 안학길, 박성남, 고영선, 김명철, 리기경, 리성봉 등에게 수여되었다.

김일성청년연예상을 엄금철, 정철범이, 김명철청년연예상을 서명준, 한평영이 수여받았다.

공공건설기공호, 공공건설자 칭호, 공훈공로자훈장, 공훈공로자 칭호 5명에게 수여되었다.

또한 국가표창 제1급을 비롯한 훈장과 메달을 많은 건설자들과

##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일군, 지원자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 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표창장이 정지철, 김병철, 황금산, 박명남, 이명철, 엄영학, 박동철, 김홍기, 권문철, 안학길, 박성남, 고영선, 김명철, 리기경, 리성봉 등에게 수여되었다.

김일성청년연예상을 엄금철, 정철범이, 김명철청년연예상을 서명준, 한평영이 수여받았다.

공공건설기공호, 공공건설자 칭호, 공훈공로자훈장, 공훈공로자 칭호 5명에게 수여되었다.

또한 국가표창 제1급을 비롯한 훈장과 메달을 많은 건설자들과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용담 협업을 한 지기들에게 특별 포상을 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용담 협업을 한 지기들에게 특별 포상을 내주시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설비들에 대한 감사편지를 실속있게 펴고있고 선진적인 영화제작기술을 적극 도입하는것을 비롯하여 만화영화 제작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컴퓨터화, 수자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갔다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고 명작영화의 창조를 총력해 만들어나가는데서 선구자, 기수로서의 사랑과 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문화강국건설에 힘있게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다짐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의문이 채택되었다.

#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 20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김일성종합대학의 여러 대상공사 힘있게 추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격추진력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선린, 선미, 선학성의 원칙이 구현된 만민대학의 기비비적격추진력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한의 속도로 일떠세우라 합니다.》

만리마속도로 돌진속에서 애제와 모를,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평명거리건설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여러 대상공사들이 계속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3호교사의 외부미장공사가 끝나고 내부미장과 외부인조석미장설치는 각각 80%, 70%를 달성하였다. 뿐만아니라 지난 7월 31일 준공공사가 끝난 30층짜리 4호교사건설에서도 내부미장공사까지 적극 추진되고있다. 이와 함께 덩치는 7층짜리 화학부교사와 인체공방, 15호기공사 나동의 팔조공사도 계속되어

내부미장공사가 벌어지고있다. 15호기공사 가동, 16호기공사 사건설도 계속 빠른 속도로 다그쳐 김일성종합대학의 여러 대상공사들은 날마다 그 모습이 변모되고있다.

지난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제압박을 짓부시고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게 될 토하리의 기리인 리명기 리건설을 신로하시면서 이 거리의 건설에서 기본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격을 비롯한 과학자, 연구사들이 살게 될 실험실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것이라고 하시었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새 교사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김일성종합대학 대상공사에 참가한 여러 시공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주체과학교육의 최고 전당을 더욱 훌륭히 번모시킴으로써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는데 적극이바지할 일념으로 순간순간을 창조하고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3호, 4호교사건설을 맡은 단위의 일군들은 이미 팔조공사가 끝난데 맞게 일일, 주일, 월일전투계획을 모다 치밀하게 세우고 시공조직과 시위를 혁명적으로 하고있다.

특히 세멘트와 모래 등 자체보장을 확고히 일떠세우고 로력적의 힘을 짜고들면서 원공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고있다. 높이 4호 교사 40층짜리 살림집보다 훨씬 더 높고 건축면적도 같은 총수의 모퉁이로써 3호나 넓은 4호 교사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당시의 속도보폭과 함께 중요한 것이 질보장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하루하루의 실적에 깨끗

한 향심을 수놓아가고있다.

만리마속도로 달리는 선구자가 걸출한 일일이 15호기공사 가, 나동건설에서 맥박치고있다.

건설에 참가한 항남도련단의 지원관들은 공사속도를 원만히 보장할데는 항남도련원들 기 능공양심을 적극 받아들여주고 있다. 항남도련원들이 높은 도의적 의지를 발휘하여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대응을 부단히 펴내세우면서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이고있다. 항남도련원들이 높은 도의적 의지를 발휘하여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대응을 부단히 펴내세우면서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이고있다.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해 한사관들이 펼쳐나온 여러 시공단위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대상공사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현기보도반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에서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에서 실시된 차량검정시험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있다.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에서 실시된 차량검정시험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있다.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에서 실시된 차량검정시험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있다.

## 연간 전동기생산계획 초과완수, 3종의 새 제품 개발

동력전기공장에서 만리마속도로 달리는 기적이 세계에 나뉘고있다.

현지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연간 전동기생산계획을 145%를 넘겨 완수하였다. 질과 공방에서는 지난해 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전동기를 반년 남짓한 기간에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중요대산건설에 기여해 보냈다.

이 기간 공방에서는 전력전자 기술이 도입된 3종의 새 제품들도 개발하였다. 가역전압변환기의 유연시동장치와 강력중공기를 비롯한 새 제품들은 탄탄, 광산에서 극산화된 실리코나 막장판의 기계회로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총정과 비상한 강령적의지를 안고 총력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성과 탄탄함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탄광전차와 적제기, 전기식작업기생산에 쓰이는 SR전동기를 개발하여

당 제7차대회에 자랑한 로력적 선봉로 드린 공방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200일전투의 불길높이 현수적인 공격전에 전입하였다. 여러가지 절친 문제들이 제기되었지만 단단히 닫힌 발걸음으로 연간 전동기생산계획과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새 제품들을 편이 개발할수 없었다.

공방당조직에서는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발휘된 백철불굴의 정신으로 삼여 투쟁하도록 대중을 불타오르키면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200일전투를 확고히 해나감에 힘입어 전진적사상공세를 높여나갔다. 붉은기가 새겨진 편지에는 곳곳에 대중의 실상과 불을 다는 격동적인 구조물과 전투수보들이 나뉘는 가운데 집단적의의 불길에 새겨져 라울과 현인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었다.

최대근로자를 비롯한 생산의 첫 공정을 지켜낸 종업원들은 10여의 파열을 모이들이고 많은 양의 유도체전극을 자력으로 만들어내어 주강주물용소재를 귀공정에 넉넉히 보충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제반, 전동기제작의 로동자들은 최대간 사회주의 경쟁을 오호하고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값있는 기술발전적일

에 이곳 기술자들은 실장 리경호를 비롯한 국가과학원 총력기개발연구소 과학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탄탄, 광산에서 생산을 높이고 마직적업에서의 일일승과 생산성을 다같이 높일수 있는 강력중공기와 유연시동장치개발에 열과불었다. 누구도 걸이보지 못한 초형집을 짓는 이틀의 앞집에는 난관도 있었다. 그때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지날마다 많은 일투의 중요성을 자각하며 집의 과학의 세계를 한치한치 정밀해나갔다.

이런데 새로 개발한 강력중공기와 가역전압변환기의 유연시동장치 등은 조종성이 좋고 기동전류가 작으며 전압이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있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이밖에도 공방에서는 전동기의 절연체기를 높일수 있는 새 기술과 출력소자에 쓰이는 핵각장치를 자체로 연구개발하였으며 전동기제작의 경쟁력을 실현하는 등의 과학기술성공과를 이룩하였다.

성공에 만족을 모르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금 더욱 기세를 올리며 200일전투성과를 확대하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 정진초등학교, 중등학교건설 마감단계

경기도에서 정진초등학교, 중등학교건설 마감단계

경기도에서 정진초등학교, 중등학교건설 마감단계

경기도에서 정진초등학교, 중등학교건설 마감단계

경기도에서 정진초등학교, 중등학교건설 마감단계

경기도에서 정진초등학교, 중등학교건설 마감단계

경기도에서 정진초등학교, 중등학교건설 마감단계



화력발전소에서 본사기자 한광명영은 두동굴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 동명영





# 물고기잡이성으로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항기 넘치게 하자

## 수산자원보호증식에 생산장성의 큰 예비가 있다

연진수산사업소가 비약의 한걸음 거세게 내밀고있다.

최근간 산 사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해마다 수산생산계획을 1, 2배이상 장성시키면서 사업소안락을 일신하고 고기배와 어구의 현대화건설은 물론 바다가방망이와 배양장건설 등 종합적합한 일들을 통해 크게 전진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뜻깊은 올해에 들어와 70일 전후목표를 성과적으로 결정한 사업소에서는 놀이진 200일 전후의 일별계획도 1.4배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장해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당수익에 양식시설만 늘어놓고 물고기, 새끼고기들이 늘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수산자원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수산자원보호증식은 현대를 위한 단단한데의 애국사업이며 더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종전의 모습을 뛰어넘어고 생산량증식의 길에 들어서 모든 면에서 일이 절되는 단위로 수산물 내기 시작하는 수산사업소의 경우가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현직총무장 사기 지체인사업소를 시작할무렵 사업소에서는 수산자원보호증식에 별로 낯을 들

려진 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리치 못하고 물고기잡이에 주력하였다. 그러다보니 현대생산량은 지금보다 낮았고 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는 측면에서 부족함이 적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방법론으로 수산자원보호증식을 하고물었는가. 당초초기의 지도위에 사업소에서는 다시마, 미역, 성게, 해삼, 조개양식을 위한 배양장건설을 선차적으로 내밀었다. 현대적인 배양장건설이 짧은 기간에 끝나고 여러가지 바다수산물들의 양식이 터어업생산기술도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동시에 사업소에서는 인공어초조성사업을 근거있게 내밀었다. 로망작업반에서 만든다 올레 물고기잡이를 위해 빈대로 나팔매다 막물을 넣은 가마니를 씌고나가지 않은 인공어초를 조성하였다. 한겨 작업반에서 만든다 수백의 막물을 넣어 인공어초를 만들었는데 수산사업소로 조성한 인공어초의 수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인공어초를 충분히 조성한 다음 사업소에서는 배양장에서 알을 받아 인공어초를 성게와 해삼, 새끼조개들을 사업소앞바다에 놓아주었다. 겹쳐서 다시마, 미역양식장면적을 해마다 늘이고 바다나물류들을 대대적

업에서

삼, 조개들에게 좋은 생태환경을 보장해준다. 따라서 증체할 도 자연히 높아져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담보해준다.

사업소에서는 수산인민들의 성게, 해삼과 각종 새조개들을 바다에 놓아주어 몇해전부터 그 맥을 높이고있다.

수산자원보호증식을 전방성있게 하고자하면 경제적실리 또한 대단하다. 주변에서 채취한 막물과 새끼를 넣어 배양하였는데 투자 대 경제적회파성면에서 분석해보면 몇배 지어 몇십배의 실리를 얻을수 있다. 그만큼 번 수입을 계속적으로 높여 마음은 든든로 일만을 통해 크게 전진해 가고있다.

고기배와 어구의 현대화를 다그쳐 보다 높은 물고기잡이성과 높은 생산량을 위한 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해주고 있다. 몇해동안에 11척의 크고 작은 고기배들을 무어내고 능력 이 큰 팽동 및 가동기지를 무어 사들여, 여러 종의 생산면적과 분화생산기까지 일제에 순차적으로 이것을 확충해주고있다.

수산자원보호증식을 근거있게 내밀던 연유, 로력소비 더 어리고 예서도 좋은 질을 얻을수 있다. 사업소에서는 어항까지 바다 통시물자원이 풍부한 드넓은

바다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수산물생산을 다그치고있다. 씨를 뿌리고 땅을 갈아주어 중요한 가을은 인양은 실증해준 다시마, 미역, 성게, 해삼, 조개들을 수확하기도 하고 서식조건이 좋은 곳에서 자라는 분어, 가제미 등의 물고기들을 잡아 내기도 한다.

이렇게 사시할 바다를 비우지 않고 가꾸는바다, 먼바다에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식으로 갖가지 맛좋은 수산물생산을 늘이는셈이다. 때문에 수산자원보호증식은 결코 물고기잡이와 동떨어진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하나를 무어하여 둘, 셋의 경제적실리를 얻을수 있는 일이라고 이곳 일군들은 한결같이 이야기 하고있다.

우리의 단단 현진초지배인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사업소가 빠른 기간에 생산량증식의 길에 들어선것은 당의 수산정책대로 수산자원보호증식을 사할한 문제로 들어지고 근거있게 내민 결과입니다.》

현진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 경험은 각지 수산사업소들에서 물고기잡이와 함께 수산자원보호증식을 중요한 정책적문제 대하고 실증있게 밀고나갈 때 로마리더서 만선의 배고통소리 더 높이 울려퍼질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 한천 수산 사업소에서 과학수산이 자생산실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단위물에서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현대과학기술을 기초하여 기상예보, 해상지휘, 물고기 가공체계를 설립 및 전격감시체계, 배수리체계, 양식체계 구축하며 사할 막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로전술을 벌려 물고기대종을 안아와야 합니다.》

한천수산사업소에 과학수산열풍이 새차게 휘몰아치고있다.

높이 세는 상안된 물고기잡이계획과 7월전 목표부 기한전에 초과 완수!

240hp와 80hp의 고기배무이 마당면에서 일일제 추진!

과학적인 어로전과 현대물자원의 불발없이 총량의 200일전후목표를 지향한 혁신과 위훈 창조의 퍼지되어 계속 이어진다.

과학수산이 물고기잡이실적임을 명심한 이곳 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강력을 비약의 보검으로 더욱

역제에 뛰어났다.

로망남, 추방전, 강원북동부들은 현대적인 항해 및 통신, 어로장비들을 그르히 갖추기 위한 사업을 계획대로 다그치면서 새로운 배우이과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맞게 수행하도록 조건보장사업을 잘하고있다.

어항장비와 어항에도, 물고기잡이지휘를 정보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의 열 앞장에 1선단과 2선단의 일군들이 있다. 이들은 현대화수준이 높은 어항장비와 위치정기, 각종 통신설비들을 적극 받아들여 고 정연한 해상지휘체계를 세우며 출어일수와 기항당 어획고를 높여 수산물생산에서 새로운 당양을 일으키고있다.

수출적에 달하는 인강장선의 어로공들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한 우리 나라 서해안에 맞는 과학적인 그물리용방법을 널리 도입하여 이전보다 물고기잡이효율을 훨씬 높이고있다.

특히 문정수, 리광일, 현경남, 류영철, 김광일, 최은선동무를 비롯한 청년호와 712호, 11360호와 11286호, 11646호와 1283호의 어로공들이 불같이 뜨는 바다를 온도와 열도, 물고기잡이수준 등을 세밀하게 장악한데 기초하여 두비전, 기술정진 힘입어 밀물에도 넉넉 물고기잡이 계획을 밋나게 완수하는 눈부신

혁신을 일으키었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정보기술수단들을 훌륭히 갖춘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고 그 운영을 실증있게 하고모든 어로공들을 황금력사상조의 주인공들로 훌륭히 준비시키고있다.

우리 당의 은총속에 훌륭히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하여 교육 및 과학연구단위들과 국가망을 형성한 과학기술보급실에서 만선의 주인공들이 새 기술의 개척자, 첨단물자원의 전초병으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

이곳에서 세계적인 선박공업부분의 최신발전수준을 보다 풍부히 파악한 김철현동무는 《황금해예열의 240hp 절체설계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성과적으로 관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배수리직장과 제배직장, 가공직장의 로동자들도 김혁공업총합대학 등의 원격교육체제에 망라되어 고기배무이와 어구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물고기잡이와 양식을 다같이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한물 단단히 하고있다.

과학수산의 열풍을 새차게 일으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또다시 바꿀운동과 열도, 물고기잡이수준 등을 세밀하게 장악한데 기초하여 두비전, 기술정진 힘입어 밀물에도 넉넉 물고기잡이 계획을 밋나게 완수하는 눈부신

정진수산사업소의 고기배들이 만선의 배고통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70일전후목표를 앞장져 결정한 수산사업소에서는 1.5배로 놀이진 200일전후의 일별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수백의 물고기를 더 잡았다.

올해의 연유, 자제보장조건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고 어항조건도 불변이다.

이런 속에서 사업소가 이룩하고있는 성과속에는 화선지휘관 불철저한 드레한 공격전의 양상에서 물고기잡이를 위한 지체없는 리허출동들을 비롯한 사업소일군들의 창조적인 일본새가 깃들여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쟁적일군은 있는 로력과 인력, 자재, 자금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없는 생산과 건설을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하겠다는 하는것을 중심에 놓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여 경제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도록 생산을 독려했어야 합니다.》

수시로 변하는것이 어항조건이다. 고기배와 물고기배를 변경할수 있고 넓은 수역에 분포하여 최후에는 물고기잡이를 진행할수 있다.

이런 경우 트랜잭이 우세할수

있고 조끼, 자방, 게드레 등을 리용한 물고기잡이방법이 더 실려가 낚일수 있다. 연유, 로력소비 더 어리고 예서도 어떻게 따라온 배와 작은 배의 경제적회파성이 달라질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큰 배들과 작은 배사이의 경제적회파성을 따지면 작은 배가 우세하였다.

큰 배들이 위주로 하는 물고기잡이방법인 트랄작업보다 작은 배들의 어로활동에 적합한

배를 가지고 기록하지만 훨씬 많은 연유가 소비되었다.

이렇게 사업소의 일군들은 구체적인 어항조건에 맞게 큰 배와 작은 배의 배합조건을 먼바다에서도 잡고 가까운바다에서도 많은 물고기를 잡고 있다.

정진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은 모든 수산사업소들에서 고기배들은 물론 작은 고기배들의 만능화를 실현하여 파간 어로전을 전개해나가는 조건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을 높이 쌓아가는 이곳 어로공들의 줄기만 두절로 하여 동해어장이 날이 갈수록 더욱 불리고있다.

《박사》선장의 어항탐색수첩

박진수산사업소 0-12-1291호는 동해안으로 남진하여 어장을 타고다니는 손가락이 있는 배로 알려져있다. 중일어장을 누가 먼저 차지하는가에 따라 물고기잡이실적에서 큰 차이가 나는것으로 하여 0-12-12

## 들끓는 동해 어장의 숨결

한천 수산 사업소에서 과학수산이 자생산실적

## 높은 어획고에 비친 혁명적인 일본새

정진수산사업소의 고기배들이 만선의 배고통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70일전후목표를 앞장져 결정한 수산사업소에서는 1.5배로 놀이진 200일전후의 일별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수백의 물고기를 더 잡았다.

올해의 연유, 자제보장조건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고 어항조건도 불변이다.

이런 속에서 사업소가 이룩하고있는 성과속에는 화선지휘관 불철저한 드레한 공격전의 양상에서 물고기잡이를 위한 지체없는 리허출동들을 비롯한 사업소일군들의 창조적인 일본새가 깃들여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쟁적일군은 있는 로력과 인력, 자재, 자금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없는 생산과 건설을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하겠다는 하는것을 중심에 놓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여 경제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도록 생산을 독려했어야 합니다.》

수시로 변하는것이 어항조건이다. 고기배와 물고기배를 변경할수 있고 넓은 수역에 분포하여 최후에는 물고기잡이를 진행할수 있다.

이런 경우 트랜잭이 우세할수

있고 조끼, 자방, 게드레 등을 리용한 물고기잡이방법이 더 실려가 낚일수 있다. 연유, 로력소비 더 어리고 예서도 어떻게 따라온 배와 작은 배의 경제적회파성이 달라질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큰 배들과 작은 배사이의 경제적회파성을 따지면 작은 배가 우세하였다.

큰 배들이 위주로 하는 물고기잡이방법인 트랄작업보다 작은 배들의 어로활동에 적합한

정진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리치 못하고 물고기잡이에 주력하였다. 그러다보니 현대생산량은 지금보다 낮았고 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는 측면에서 부족함이 적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방법론으로 수산자원보호증식을 하고물었는가. 당초초기의 지도위에 사업소에서는 다시마, 미역, 성게, 해삼, 조개양식을 위한 배양장건설을 선차적으로 내밀었다. 현대적인 배양장건설이 짧은 기간에 끝나고 여러가지 바다수산물들의 양식이 터어업생산기술도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동시에 사업소에서는 인공어초조성사업을 근거있게 내밀었다. 로망작업반에서 만든다 올레 물고기잡이를 위해 빈대로 나팔매다 막물을 넣은 가마니를 씌고나가지 않은 인공어초를 조성하였다. 한겨 작업반에서 만든다 수백의 막물을 넣어 인공어초를 만들었는데 수산사업소로 조성한 인공어초의 수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인공어초를 충분히 조성한 다음 사업소에서는 배양장에서 알을 받아 인공어초를 성게와 해삼, 새끼조개들을 사업소앞바다에 놓아주었다. 겹쳐서 다시마, 미역양식장면적을 해마다 늘이고 바다나물류들을 대대적

업에서

삼, 조개들에게 좋은 생태환경을 보장해준다. 따라서 증체할 도 자연히 높아져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담보해준다.

사업소에서는 수산인민들의 성게, 해삼과 각종 새조개들을 바다에 놓아주어 몇해전부터 그 맥을 높이고있다.

수산자원보호증식을 전방성있게 하고자하면 경제적실리 또한 대단하다. 주변에서 채취한 막물과 새끼를 넣어 배양하였는데 투자 대 경제적회파성면에서 분석해보면 몇배 지어 몇십배의 실리를 얻을수 있다. 그만큼 번 수입을 계속적으로 높여 마음은 든든로 일만을 통해 크게 전진해 가고있다.

우리의 단단 현진초지배인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사업소가 빠른 기간에 생산량증식의 길에 들어선것은 당의 수산정책대로 수산자원보호증식을 사할한 문제로 들어지고 근거있게 내민 결과입니다.》

현진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 경험은 각지 수산사업소들에서 물고기잡이와 함께 수산자원보호증식을 중요한 정책적문제 대하고 실증있게 밀고나갈 때 로마리더서 만선의 배고통소리 더 높이 울려퍼질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한천 수산 사업소에서 과학수산이 자생산실적

한천 수산 사업소에서 과학수산이 자생산실적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조선로동당대표단 아프리카나를 방문하기 위하여 출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미수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조선로동당 대표단 아프리카나를 방문하기 위하여 출발

조선로동당 대표단 아프리카나를 방문하기 위하여 출발

조선로동당 대표단 아프리카나를 방문하기 위하여 출발

## 전국화학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스위스공산당대표단 귀국

스위스공산당대표단 귀국

## 반제민주전선 평양지구 성원들 개선을 위한 전문 참관

반제민주전선 평양지구 성원들 개선을 위한 전문 참관

## 애국으로 이어가는 참된 삶

애국으로 이어가는 참된 삶

##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대표단 여러 곳 참관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대표단 여러 곳 참관

스위스공산당대표단 귀국

반제민주전선 평양지구 성원들 개선을 위한 전문 참관

애국으로 이어가는 참된 삶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대표단 여러 곳 참관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고 있다.



어항수산사업소에서

스위스공산당대표단 귀국

반제민주전선 평양지구 성원들 개선을 위한 전문 참관

애국으로 이어가는 참된 삶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대표단 여러 곳 참관

# 체육의 과학화에 박차를 가하여 나라의 체육기술을 세계적인 높이로!

## 과학화는 체육발전의 위력한 추동력

전문체육기술을 빠른 시일 안에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세우며 우리 선수들이 국제경기장에서 예전보다 더욱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반에 펼치도록 하자라는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평양체육단에서는 당조직의 지도원에 적성체질을 갖춘 선수 선발로부터 훈련과 경기에 이르기까지 기술발전의 전과정을 새로운 과학적도구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강하게 내밀어 좋은 결과를 창조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강국건설에서 승리의 열쇠는 체육을 과학화한 데 있습니다.》

이곳 체육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선 적성체질을 갖춘 선수선발을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고있는 것이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체육단에서는 선수선발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있었다. 현실적으로 육체적준비가 좋은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적성체질의 소유자들을 선발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감독들의 주관이나 경험 등에 기초한 것으로 하여 상당한 성과가 이룩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결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감독들이 자기가 선발한 선수에 대해 신심이 없어하는 현상이 있었다.

이러한 부족점을 결정적으로 극복하지 않고서는 선수들의 발전과 경기성과는 물론 체육단의 내실을 확립할 수 없었다.

선수선발부터 철저히 과학화

할 때 당이 바라는 훌륭한 체육강국들을 많이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한 일군들은 그 실험을 위한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과학적인 선수선발방법을 확립하는데서 체육단의 연구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머뭇거리지 않았다.

이곳 연구자들은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도 한이 없을 정도로 선진국에서 세계대회를 한 우리 선수들에 대한 자료들을 기본으로 하여 선수선발을 과학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작성을 위한 연구를 벌였다. 우리의 실정, 조선사람의 체질특성에 맞게 선수선발의 과학적대안을 더욱 촘촘히 쌓기 위한 틀과 구상을 열어나가는데 바치고자 한 그들의 열정에 한계가 없었다.

자체의 힘과 노력, 피라는 노력의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즉시 선수선발사업에 도입되었다. 우리 선수들의 체질과 체형 등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의 도입은 선수선발에서 혁신을 가져왔다.

선수선발은 과학화수준이 높아진 결과 실질적으로 전방이 좋은 대상을 정확히

선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총무원에서도 실리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었다.

평양체육단 청소년체육학교만 놓고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학교일군인 김동철은 지도교원, 연구사들과의 면담에 학생선발을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내밀었다. 학교가 생각되는 오해시 있지만 국제경기예를 들어 학생들을 키워낼 수 없는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결국 감독의 높은 자질은 선수선발의 과학화실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제까지 부단한 안정적종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중시한 문제를 연구사들이 교수훈련의 과학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제를 자체로 창안해나가는 사업이었다.

어디 총무원 감독, 연구사들이 실정에 맞게 개발한 작성이란 것은 기제는 높은 훈련성과를 이룩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현실이다. 일군들은 이러한 성과를 적극 평가해주는 한편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함으로써 감독, 연구사들이 자질을 부단히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군들은 협의 및 자체도입의 등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는 동시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연구사들을 내세워 교수훈련지도에서 온을 내걸고있었다. 일군들은 이러한 성과를 적극 평가해주는 한편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함으로써 감독, 연구사들이 자질을 부단히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군들은 협의 및 자체도입의 등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는 동시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연구사들을 내세워 교수훈련지도에서 온을 내걸고있었다. 일군들은 이러한 성과를 적극 평가해주는 한편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함으로써 감독, 연구사들이 자질을 부단히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에 도움이 되는 기계적배경적으로 담보하였다. 이러한 창조열풍, 과학중시열풍으로 온 체육단이 들끓는 속에 적지 않은 감독, 연구사들이 교수훈련의 과학화실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훈련기제를 내놓을수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자라까지 지니게 되었다.

체육단일군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면서 기계적배경을 보다 과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펴내었다. 지지불편한기계적배경을 과학화하여 더 큰 실리를 얻기 위해 개발한 힘훈련장치원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구조가 간단하고 운동량이 안정적이며 사용이 편리한 동시에 온몸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기계는 선수의 육체훈련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자료기록화해 기여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훈련에서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훈련지도의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기본교과를 정확히 틀어쥐고 힘을 집중하여 완공해 나가는 이 곳 일군들의 진취적인 사업기풍은 본받을 만하다.

당장 장철남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체육을 과학화함에 대한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조선사람의 체질특성에 맞는 체육과학화를 위한 창조적 불타람을 일군에서 일으켜나갈 때 비약의 지평을 더욱 활짝 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쫓아 가는 귀중한 경험입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지희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의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기 중앙체육단의 여자선수종목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체육단의 기풍종목으로 되어야 하는 여자수구가 제자리걸음만 하더니 단위의 전진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있다.

문제는 종목발전을 위한 과학적도구에 약한것이였다.

당장 김수남동무를 비롯한 체육단일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감독과 체육과학연구소, 의도 연구사들의 3자협력을 강화하는데서 찾았다.

이곳 일군들은 감독, 연구사들의 정성진공을 적극 받들고 키고 그들이 합심하여 체육의 과학화실현에서 앞장서나가기 도록 하는데 무엇보다도 큰 힘을 쏟았다.

한것은 체육의 과학화실현에서도 역시 정성진공이 첫째이고 감독과 연구사들이 체육을 과학화함에 대한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도 마음을 더욱 합쳐나갈 때 과학기술의 위력도 더 크게 나타날수 있게 되였다.

당장은 여자수구감독과 체육과학연구소, 의도연구사와 자주 무릎을 맞추었다.

지난해에 국제경기경험이 전혀 없는 나이던 선수와 체육과학의 도움으로 제노라 하는 강자들이 풀리고 단연 세계대회를 뒤흔들었던 비결도 실감있게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가 쫓아 가는 귀중한 경험입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지희철

그러나 선수들이 국제경기장에서 뛰어난 금메달을 보여주고 그 얻은 체육과학의 노력과 기세아리는 사람들은 아마도 잊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 이어나가는 나니 무지중 몇해전 몸소 경험했던 경기에서 나오어 우리 선수들의 추경정도를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지리에 없는 영향을 지니었던 로시대 여성체육과학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던가.

그가 당당했던 선수들이 국제경기장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뒤는 수심지거나 된다고 한다. 김유미동무는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국의 금메달을 안아올리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 노력했음뿐입니다.》

질시 않은 그의 말은 실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헌대적인 기세와 더불어 새로운 발명품들을 보여 사람들은 그 개발에 실현을 보지 못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승악산체육단에서 일군의 노력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출장길에 체육과학도서를 구입할 때면 똑같은 책을 3권씩 마련하여 감독과 연구사들에게 양겨주기도 하였다.

일군들의 이렇듯 적극적인 방호전에 여자수구책임감독 조상혁동무와 체육과학연구소, 의도연구사들은 협동관철을 더욱 활기있게 전개하면서 선수들의 체질훈련과 경기기술향상, 몸상태조성 등 모든 공정을 철저히 과학화해나가는 데 지혜와 힘과 열정을 합쳐 고집했다.

체육단일군들은 여자수구 종목에서 이룩하는 경험들을 모든 종목에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펴나갔다.

3자협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쏟은 결과 새로운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었다.

올해에 진행된 만경대 2상경기에서 출진한 이곳 여자수구팀이 매우 불리한 경기정황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좋은것이지만 더욱 좋은것은 체육단의 모든 감독들과 연구사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3자협력을 강화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것인가를 더욱 깊이감하게 된것이였다.

이곳 체육단에서는 이룩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당정책의 요구대로 3자협력을 강화하는데 끊임없는 박차를 가하여 체육과학을 적극 추진하고 기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여 세계대회를 키워내기 위한 헌신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평양체육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선 적성체질을 갖춘 선수선발을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고있는 것이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체육단에서는 선수선발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있었다. 현실적으로 육체적준비가 좋은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적성체질의 소유자들을 선발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감독들의 주관이나 경험 등에 기초한 것으로 하여 상당한 성과가 이룩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결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감독들이 자기가 선발한 선수에 대해 신심이 없어하는 현상이 있었다.

이러한 부족점을 결정적으로 극복하지 않고서는 선수들의 발전과 경기성과는 물론 체육단의 내실을 확립할 수 없었다.

선수선발부터 철저히 과학화

한편에 도움이 되는 기계적배경적으로 담보하였다. 이러한 창조열풍, 과학중시열풍으로 온 체육단이 들끓는 속에 적지 않은 감독, 연구사들이 교수훈련의 과학화실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훈련기제를 내놓을수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자라까지 지니게 되었다.

체육단일군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면서 기계적배경을 보다 과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펴내었다. 지지불편한기계적배경을 과학화하여 더 큰 실리를 얻기 위해 개발한 힘훈련장치원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구조가 간단하고 운동량이 안정적이며 사용이 편리한 동시에 온몸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기계는 선수의 육체훈련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자료기록화해 기여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훈련에서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훈련지도의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기본교과를 정확히 틀어쥐고 힘을 집중하여 완공해 나가는 이 곳 일군들의 진취적인 사업기풍은 본받을 만하다.

당장 장철남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체육을 과학화함에 대한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조선사람의 체질특성에 맞는 체육과학화를 위한 창조적 불타람을 일군에서 일으켜나갈 때 비약의 지평을 더욱 활짝 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쫓아 가는 귀중한 경험입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지희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의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기 중앙체육단의 여자선수종목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체육단의 기풍종목으로 되어야 하는 여자수구가 제자리걸음만 하더니 단위의 전진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있다.

문제는 종목발전을 위한 과학적도구에 약한것이였다.

당장 김수남동무를 비롯한 체육단일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감독과 체육과학연구소, 의도 연구사들의 3자협력을 강화하는데서 찾았다.

이곳 일군들은 감독, 연구사들의 정성진공을 적극 받들고 키고 그들이 합심하여 체육의 과학화실현에서 앞장서나가기 도록 하는데 무엇보다도 큰 힘을 쏟았다.

한것은 체육의 과학화실현에서도 역시 정성진공이 첫째이고 감독과 연구사들이 체육을 과학화함에 대한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도 마음을 더욱 합쳐나갈 때 과학기술의 위력도 더 크게 나타날수 있게 되였다.

당장은 여자수구감독과 체육과학연구소, 의도연구사와 자주 무릎을 맞추었다.

지난해에 국제경기경험이 전혀 없는 나이던 선수와 체육과학의 도움으로 제노라 하는 강자들이 풀리고 단연 세계대회를 뒤흔들었던 비결도 실감있게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가 쫓아 가는 귀중한 경험입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지희철

그러나 선수들이 국제경기장에서 뛰어난 금메달을 보여주고 그 얻은 체육과학의 노력과 기세아리는 사람들은 아마도 잊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 이어나가는 나니 무지중 몇해전 몸소 경험했던 경기에서 나오어 우리 선수들의 추경정도를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지리에 없는 영향을 지니었던 로시대 여성체육과학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던가.

그가 당당했던 선수들이 국제경기장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뒤는 수심지거나 된다고 한다. 김유미동무는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국의 금메달을 안아올리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 노력했음뿐입니다.》

질시 않은 그의 말은 실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헌대적인 기세와 더불어 새로운 발명품들을 보여 사람들은 그 개발에 실현을 보지 못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승악산체육단에서 일군의 노력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출장길에 체육과학도서를 구입할 때면 똑같은 책을 3권씩 마련하여 감독과 연구사들에게 양겨주기도 하였다.

일군들의 이렇듯 적극적인 방호전에 여자수구책임감독 조상혁동무와 체육과학연구소, 의도연구사들은 협동관철을 더욱 활기있게 전개하면서 선수들의 체질훈련과 경기기술향상, 몸상태조성 등 모든 공정을 철저히 과학화해나가는 데 지혜와 힘과 열정을 합쳐 고집했다.

체육단일군들은 여자수구 종목에서 이룩하는 경험들을 모든 종목에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펴나갔다.

3자협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쏟은 결과 새로운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었다.

올해에 진행된 만경대 2상경기에서 출진한 이곳 여자수구팀이 매우 불리한 경기정황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좋은것이지만 더욱 좋은것은 체육단의 모든 감독들과 연구사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3자협력을 강화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것인가를 더욱 깊이감하게 된것이였다.

이곳 체육단에서는 이룩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당정책의 요구대로 3자협력을 강화하는데 끊임없는 박차를 가하여 체육과학을 적극 추진하고 기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여 세계대회를 키워내기 위한 헌신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 감독의 날 운영을 실속있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의 과학화는 체육발전의 위력한 추동력입니다.》

체육부에서도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운영한다는것은 체육을 과학화함에 대한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의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매주 감독의 날을 통하여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보다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는 김종래해주제 1사범대학체육단 일군들의 사업이 주목된다.

당장 장철남, 부단장 조성원 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체육 과학기술보급실이 꾸러졌을 때 어떻게 하면 실리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할것인가에 대한 집체적토의를 거듭해나갔다.

그 과정에 쫓은 방도중의 하나가 감독의 날 운영을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진행하는것이였다.

죽 어느날에도 과학기술보급실운영계획을 잘 세우고 실속있게 진행하면서 감독의 날인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에서 감독들을 위한 체육과학발전과 실무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실력을 높이고 새롭고

과학적인 교수훈련방법을 끊임없이 탐구도입하기 위한 창조적 열풍을 일으키자는것이 일군 감독에서 논의된 문제의 중심이었다.

감독의 날 운영을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진행하고자 하여 보급실운영의 실리가 결코 보장되는것은 아니었다. 중요한것은 체육과학강연과 실무학습에서 취급하여야 할 문제점들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것이였다. 체육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몇몇 일군들이 아니라 감독들이자신 직접적으로 찾아내게 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감독들이 훈련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제때에 포착할 수 있기때문이었다.

하여 체육단에서는 주사영용 화위원이던 의례히 모든 감독들이 다음주 감독의 날에 취급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종목의 선수가 훈련계획에 따라 육체훈련을 진행하였으나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이 선수의 체질특성에 기초한 과학적인 훈련방법이 안배되지 않았기때문이라는것, 그러면 어떤

훈련방법이 과학적인가 하는것 등이었다.

감독들이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찾아낸 다음에는 일군들이 모여 의견을 종합한데 기초하여 강연자료들과 실무학습자료들을 실속있게 준비하도록 하였다.

특히 출연자들이 과학기술보급실에서 강연을 할때 감독들의 시야를 넓혀주며 총괄적으로 보는 세계적시각, 세계적인 선수들의 육체, 기술, 전술적특성에 대하여 잘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들과 최신 훈련방법들을 공동성취로 수렴하고 분석하여 강연준비를 갖도록한 것이 온을 높여주었다.

이런 준비에 기초하여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체육과 대담형으로 진행된 강연에 대한 호평은 대단하였다.

어시기 놓치지 말아야 할것이였다.

충분한 준비가 없이 학습에 참가하여 성과를 기대하는것은 잘못이고 고기를 잡으려는것과 다르다고 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많은 감독들이 감독의 날에 취급할 문제

한편에 도움이 되는 기계적배경적으로 담보하였다. 이러한 창조열풍, 과학중시열풍으로 온 체육단이 들끓는 속에 적지 않은 감독, 연구사들이 교수훈련의 과학화실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훈련기제를 내놓을수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자라까지 지니게 되었다.

체육단일군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면서 기계적배경을 보다 과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펴내었다. 지지불편한기계적배경을 과학화하여 더 큰 실리를 얻기 위해 개발한 힘훈련장치원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구조가 간단하고 운동량이 안정적이며 사용이 편리한 동시에 온몸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기계는 선수의 육체훈련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자료기록화해 기여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훈련에서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훈련지도의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기본교과를 정확히 틀어쥐고 힘을 집중하여 완공해 나가는 이 곳 일군들의 진취적인 사업기풍은 본받을 만하다.

당장 장철남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체육을 과학화함에 대한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조선사람의 체질특성에 맞는 체육과학화를 위한 창조적 불타람을 일군에서 일으켜나갈 때 비약의 지평을 더욱 활짝 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쫓아 가는 귀중한 경험입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지희철

그러나 선수들이 국제경기장에서 뛰어난 금메달을 보여주고 그 얻은 체육과학의 노력과 기세아리는 사람들은 아마도 잊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 이어나가는 나니 무지중 몇해전 몸소 경험했던 경기에서 나오어 우리 선수들의 추경정도를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지리에 없는 영향을 지니었던 로시대 여성체육과학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던가.

그가 당당했던 선수들이 국제경기장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뒤는 수심지거나 된다고 한다. 김유미동무는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국의 금메달을 안아올리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 노력했음뿐입니다.》

질시 않은 그의 말은 실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헌대적인 기세와 더불어 새로운 발명품들을 보여 사람들은 그 개발에 실현을 보지 못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승악산체육단에서 일군의 노력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출장길에 체육과학도서를 구입할 때면 똑같은 책을 3권씩 마련하여 감독과 연구사들에게 양겨주기도 하였다.

일군들의 이렇듯 적극적인 방호전에 여자수구책임감독 조상혁동무와 체육과학연구소, 의도연구사들은 협동관철을 더욱 활기있게 전개하면서 선수들의 체질훈련과 경기기술향상, 몸상태조성 등 모든 공정을 철저히 과학화해나가는 데 지혜와 힘과 열정을 합쳐 고집했다.

체육단일군들은 여자수구 종목에서 이룩하는 경험들을 모든 종목에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펴나갔다.

3자협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쏟은 결과 새로운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었다.

올해에 진행된 만경대 2상경기에서 출진한 이곳 여자수구팀이 매우 불리한 경기정황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좋은것이지만 더욱 좋은것은 체육단의 모든 감독들과 연구사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3자협력을 강화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것인가를 더욱 깊이감하게 된것이였다.

이곳 체육단에서는 이룩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당정책의 요구대로 3자협력을 강화하는데 끊임없는 박차를 가하여 체육과학을 적극 추진하고 기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여 세계대회를 키워내기 위한 헌신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승악산체육단에서 일군의 노력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출장길에 체육과학도서를 구입할 때면 똑같은 책을 3권씩 마련하여 감독과 연구사들에게 양겨주기도 하였다.

일군들의 이렇듯 적극적인 방호전에 여자수구책임감독 조상혁동무와 체육과학연구소, 의도연구사들은 협동관철을 더욱 활기있게 전개하면서 선수들의 체질훈련과 경기기술향상, 몸상태조성 등 모든 공정을 철저히 과학화해나가는 데 지혜와 힘과 열정을 합쳐 고집했다.

체육단일군들은 여자수구 종목에서 이룩하는 경험들을 모든 종목에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펴나갔다.

3자협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쏟은 결과 새로운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었다.

올해에 진행된 만경대 2상경기에서 출진한 이곳 여자수구팀이 매우 불리한 경기정황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좋은것이지만 더욱 좋은것은 체육단의 모든 감독들과 연구사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3자협력을 강화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것인가를 더욱 깊이감하게 된것이였다.

이곳 체육단에서는 이룩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당정책의 요구대로 3자협력을 강화하는데 끊임없는 박차를 가하여 체육과학을 적극 추진하고 기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여 세계대회를 키워내기 위한 헌신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 《우리의 일터를 사랑합시다》

6월말까지 연간계획을 120% 넘어서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전례없는 생산실적이 기록된것은 물론이고 이전에 없는 불수 없었던 새 풍경을 펼쳐서 사람들을 놀라우고있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 대답인듯 하나의 부름이 메아리친다.

《우리의 일터를 사랑합시다.》

나 뜨거운다. 그 파력은 집지독과 끈기다 하면서 일부 사람만이 도리미비를 저었던 생산이었다. 제과가자 혼의되던 생산을 말아내는 지대인의 생각은 길었다. 그 나날 며칠밤을 잠도 이루며 생산을 돌아보는 지대인의 마음속에 제일 길이지러잡은 생각은 바로 생산생활이었다. 그도그렇지만 오랜 광부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그들이 한결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높은 생산실적을 찍을 줄이던 나날들에 대한 추억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일터에 대한 애착은 결코 잊진 전보였지만 잊지 않았다. 나날이든 제우실을 허리는 광부들의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이 혁신의 동력으로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사랑하는 정은 일터인것이다. 생산이 걸어온 지난 10여년간의 날과 달들이 력력히 어머오는 그 놀라운 전면에 그든 이야기는 얼마

구 구성 철도광산 일군들과 종업원들

생산은 오늘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일과하는 집단, 누구나 부러워하는 지역경제생동으로 지라였다.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던 목이 아니었다. 창조와 혁신으로 땅을 뚫어내는 불같은 마음, 그 마음이 스민 일터만이 위훈의 활무대로 켜스 있다든 것을 뜨겁게 세겨주는 자랑찬 일터였다.

생산은 오늘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일과하는 집단, 누구나 부러워하는 지역경제생동으로 지라였다.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던 목이 아니었다. 창조와 혁신으로 땅을 뚫어내는 불같은 마음, 그 마음이 스민 일터만이 위훈의 활무대로 켜스 있다든 것을 뜨겁게 세겨주는 자랑찬 일터였다.

생산은 오늘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일과하는 집단, 누구나 부러워하는 지역경제생동으로 지라였다.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던 목이 아니었다. 창조와 혁신으로 땅을 뚫어내는 불같은 마음, 그 마음이 스민 일터만이 위훈의 활무대로 켜스 있다든 것을 뜨겁게 세겨주는 자랑찬 일터였다.

우승의 시상대와 체육과학자

사람들은 높이 날리는 공화국기와 함께 조국의 존엄이 떨쳐지고 애국가의 선율이 온 누리를 울려 퍼지는 시각에 우리 체육인들이 금메달과 더불어 공화국의 영예를 빛내어 주는 우승의 시상대를 비로소 함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

높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없는 자리, 순정한 애국의 넓과 열정이 있어, 조국에 바치는 값높은 위훈의 땅방울이 없는 오존수 없는 승리의 시상대.

진정 이는 체육과학기술경쟁이 곧 체육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승리의 시상대다.

우승의 시상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의 흥분으로 달려올랐다.

비록 우승의 시상대에서는 열광이 보이지 않아도 함흥해와 목격기와 더불어 조국의 영예를 빛내어 주는 우리의 금메달이 그대의 삶은 꽃잎이 빛났듯이 체육과학자들이 더욱 신심도 높고 진취적이다.

당의 품에서 자란 지혜와 열정을 꽃피어 푸르디 푸른 세계를 압도하는 우리 체육과학의 힘을 다지고자하며 체육강국건설의 승리의 그날을 더욱 근심없이 앞당겨가라.

강 효 심

우승의 시상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의 흥분으로 달려올랐다.

비록 우승의 시상대에서는 열광이 보이지 않아도 함흥해와 목격기와 더불어 조국의 영예를 빛내어 주는 우리의 금메달이 그대의 삶은 꽃잎이 빛났듯이 체육과학자들이 더욱 신심도 높고 진취적이다.

당의 품에서 자란 지혜와 열정을 꽃피어 푸르디 푸른 세계를 압도하는 우리 체육과학의 힘을 다지고자하며 체육강국건설의 승리의 그날을 더욱 근심없이 앞당겨가라.

강 효 심

우승의 시상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의 흥분으로 달려올랐다.

비록 우승의 시상대에서는 열광이 보이지 않아도 함흥해와 목격기와 더불어 조국의 영예를 빛내어 주는 우리의 금메달이 그대의 삶은 꽃잎이 빛났듯이 체육과학자들이 더욱 신심도 높고 진취적이다.

당의 품에서 자란 지혜와 열정을 꽃피어 푸르디 푸른 세계를 압도하는 우리 체육과학의 힘을 다지고자하며 체육강국건설의 승리의 그날을 더욱 근심없이 앞당겨가라.

강 효 심

우승의 시상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의 흥분으로 달려올랐다.

비록 우승의 시상대에서는 열광이 보이지 않아도 함흥해와 목격기와 더불어 조국의 영예를 빛내어 주는 우리의 금메달이 그대의 삶은 꽃잎이 빛났듯이 체육과학자들이 더욱 신심도 높고 진취적이다.

당의 품에서 자란 지혜와 열정을 꽃피어 푸르디 푸른 세계를 압도하는 우리 체육과학의 힘을 다지고자하며 체육강국건설의 승리의 그날을 더욱 근심없이 앞당겨가라.

강 효 심

